

재미있는



유치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1-2학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3-4학년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5-6학년 이번 성탄에는 멋진 선물을 할 거예요!

중등부 당신을 기다립니다

고등부 우리 가정은 성가정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조희영_마리아 ·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학습목표

인형극 틀을 만들어 등장인물을 직접 움직여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 준비물 : 인형극 틀 그림, 채색도구(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등), 풀, 가위

시작 기도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어요. 더 착하고 사랑스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세요.

도입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에요. 12월에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인가요?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크리스마스예요. 벌써부터 거리에는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모두들 들어 보았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설레며 기다릴까요? (이야기를 듣는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혹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이야기를 듣는다.) 네,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은 어떤 곳인가요? (이야기를 듣는다.) 말이나 양들이 여물을 먹고 잠을 자는 곳이에요. 그곳은 춥고 더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인형극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생각해 봐요.

전개

작업 인형극 틀 만들기

먼저 선생님이 그림 몇 장을 나눠 줄게요. 그림에 그려진 선 모양대로 자르고 접어 세우면 멋진 인형극 틀이 완성된답니다.

선생님들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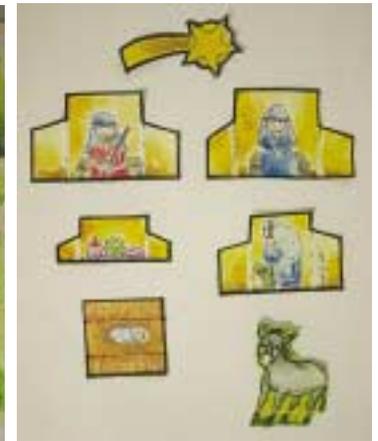
아이들이 그림을 오려서 방법대로 접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특히 ‘안으로 접는 선’과 ‘밖으로 접는 선’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형극은 루가 복음 2, 1-20 ‘예수의 탄생’을 참고해 재구성한 것이며, 아이들이 스스로 인형들을 움직이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읽어 줍니다.



마구간 바닥과 뒷벽



마구간 지붕(지붕 뒷벽을 세워 붙인다.)





준비물 : 인형극 틀 그림(홈페이지 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채색 도구(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등), 풀, 가위

만드는 방법

- ① 바닥판을 선을 따라 자른다.
- ② 지붕과 인형, 예물을 접는다. (-----은 안으로 접고 -·-·-·-은 밖으로 접는다.)
- ③ 지붕을 바닥판에 붙이고, 등장인물을 세운다.

자, 모두들 인형극 틀을 다 만들었지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만든 인형을 움직여 봐요. (고요한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면 더욱 효과적이다.)

인형극 대본

온 누리가 고요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고 초라한 구유. 이것이 세상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오십니다.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십니다.

성모님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동방에 사는 박사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따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 "빛과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렸고, 하늘의 천사와 목동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꾸며 보니 어떤가요? (이야기를 듣는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이 만든 인형극 틀로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 줄 수 있겠지요?

정리

세상에 사랑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들을 무척 사랑하신 나머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어요.

마침 기도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 저희들도 두 손 모아 당신을 찬미하며 경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실 수 있게 은총을 듬뿍 내려 주시고,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